

만남

04

2019

통권 543호

특 집 |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생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YOUNG KNOCK 토크콘서트

3월 16일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영락의 청장년들이 김운성 목사와 ‘삶과 신앙,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궁금한 것을 노크했다.

3남·4남선교회와 3여·4여전도회,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가 주관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장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믿음의 문제를 진솔하게 나누었다. (관련기사 4면)

사진 원종석 기자

표지설명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축복을 경험하셨다. 고난 속에 나타난 거룩한 축복이었다. 가시면류관과 예쁘게 핀 꽃들은 고난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이혜순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 김운성 02

YOUNG KNOCK 토크콘서트 | 박선이 04

2019 기도대각성 | 정다운 09

특집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생명

성만찬과 부활 승리의 자신감 | 차동혁 10

독일에서의 첫 부활절 | 박소인 12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합시다 | 박지운 15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한경직 목사님과 나 | 이수영 18

가을별처럼 | 이광춘 20

맑은 그리스도인 한경직 목사님 | 이인성 22

땅끝까지 이르러

의료선교는 처음이지?! | 박종훈 25

다음세대

영락교회도 되는 거였어! | 김형재 28

영락의 울타리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 이아미 30

행복한 삶의 조건 | 권경인 32

야곱의 우물가

영락의 새가족이 되기까지 | 정상원 36

그가 찢림은 | 이상진 38

봉사와섬김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캠페인 39

문화광장

주 하나님 크시도다 | 이현지 40

그날의 뜨거운 외침을 새기다! 42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 양지청 43

야고보, 예수의 길을 본 사람 | 박정관 46

4월의 영화상영작 47

교회소식

2019년도 향존직 선거 결과 외 48

4월 목회력/편집장 레터 57

새가족 환영/세례·입교자 명단 5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60

2019년 4월호 통권 543호

발 행 2019. 4.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김 은 성 위임목사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처음 들은 것은 아버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려서 영락교회를 다닌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아버님께서 말씀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교계의 일들이 있을 때 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씀의 말미엔 늘 따라 붙는 감탄사가 있었지요. 그것은 “한 목사님은 성자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보낸 도립교회 행사에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아, 저 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신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제 삶에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자 할 때, 아버님께서 하시던 일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윤의근 목사님께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에 관해 알려 주셨습니다. 성적순으로 세 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었는데, 당시 한경직목사 기념장학금은 대단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식대, 도서비에 심지어 용돈까지 얹어 주었습니다. 저는 장학제도가 시행된 후 두 번째 수혜자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거금을 들고 와서 등록하는 사무실 창구에서 저는 오히려 장학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년 두세 차례씩 영락교회에서 장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장만하셨고, 한경직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을 비롯한 장학위원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첫째는 오제도 장로님께서, 그 다음 해부터는 김철우 장로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서는 한참 어린 손자뻘인 저희에게도 말을 낮추시는 일이 없으셨고, 반찬을 집어 손가락 위에 얹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목사님이 되세요.”라고 하셨던 음성이 기억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 삶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학생이었다는 것이 목회하는 동안에도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동료와 후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곤 했습니다. 다들 저를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의 사랑으로 행복한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큰 사랑을 받으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임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쉬는 월요일이면 종종 영락교회 도서관에 왔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왔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과 목회의 길에 접어든 제가 지금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를 잇는 작은 종이 되어 목사님께서 서시던 강단에 서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되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의 일을 예견이라도 하신 것일까요? 주일 예배시간마다 강단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좋은 목사로 저기 서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영락교회에 부임한 후에 종종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듣거나, 읽곤 합니다.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의 한 복판

에서 목사님께서서는 등불 같은 분이셨습니다. 시대가 한경직 목사님을 필요로 했고, 목사님께서 그 요청에 온 몸을 드려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의 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작은 한경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된 후에 소원이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를 이은 작은 종으로서 대과 없이 영락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듯이, 나중에 혹시라도 “그 김 목사,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지...”라고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의 길의 맨 앞에 가신 주님과, 그 뒤를 이으신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완주하길 바랄 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 주간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목사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만남**



하나님 앞에서 젊음을 120% 발휘하자

- 김운성 목사와 묻고 답하는 삶과 신앙, 교회

영락교회 젊은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특별한 시간! 3월 16일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영락의 청장년들이 김운성 위임목사와 '삶과 신앙, 교회'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토크콘서트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드림홀과 드림홀 로비는 많은 청년들로 북적였다.

토크콘서트 1부는 찬양과 경배, 말씀으로 이뤄졌고 2부는 김운성 위임목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다. 1부 말씀에서 김 목사는 '자기를 사랑하세요'란 제목으로 "우리 교회 젊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라"고 권면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엄청난 영적 비밀은 '나

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정과 깊이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젊음을 120% 발휘하자.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위와 같고 나는 계란 같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신 디나미스(능력)가 들어 있으면 바위를 찌적 갈라놓는다."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톡콘'은 개인, 가정, 직장, 신앙생활을 1주제로, 영락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2주제로 1시간 반 동안 뜨겁게 진행되었다. 제4남선교회 이은철 집사가 사회를 맡고 김형재 성도(청년부), 현선경 권사(제3여), 백현주 집사(제4여), 최정국 집사(제3남), 백기덕 집사(제4남), 이대희 성도(청년선교회), 강유중 집사(부부선교회) 등이 패널로 무대에 올랐다. 생활에서 나오는 생생한 질문과 김 목사의 진솔한 대답에 청중은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큰 웃음을 터뜨리며 시종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봤는데, 뭘요(웃음)."

- 어제 철야예배도 인도하시고 내일 주일 설교 준비로 바쁘실텐데...

"이미 준비 다 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웃음)."





가장 자존심 있는 행동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영적 순발력

결혼 15년 차 머리술 많은 남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끔, 아주 가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화해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현명한 화해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알고 계시죠?(‘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웃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실행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드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의견이 안 맞거나 내가 표현 못 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오래 가슴에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부부간에는 자존심이란 말 필요 없어요. 가장 자존심 있는 행동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노하우가 아니라 영적 순발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지요. 이건 부부지간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

할 수 있는 영적 순발력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퍼즐이 안 맞아 고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35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모임 소속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우리 집에도 현재 청년부지만 노력 안 하면 청년 선교회 갈 후보가 있습니다(웃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첫째,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 안 했거나 못 한 것을 심각한 잘못된 것처럼 보는 것은 이들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결혼 안 한 청년들을 백안시하는데서 벗어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둘째, 주님은 이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은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퍼즐이 안 맞

아 고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퍼즐이 딱 맞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약간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다

우리 부부선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섬김과 신앙생활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 주일날 종일 교회에 나와 있기 쉽지 않겠지요. 교회 전체가 아이 키우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섬기지 못하는 분들의 빈자리는 아이 다 키운 분들이 대신하면 좋습니다. 그 나이 때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한 10년 선배들이 커버해준다는 교회의 공감대가 필요하지요. 그럼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틈새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발굴하도록 격려하고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나

저희 3여전도회는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회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기성 신앙인에게 고민할 때 어떻게 조언할까요.

“장신대 이만식 교수님이 이 토크콘서트를 알게 되셨다며 젊은이 대상 연구물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나? 교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만난 신앙인 때문에 떠났다는 사람이 3배나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 과장이 교회 집사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부모로

인해 떠난다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세상이 왜 이래, 예수 믿는다며 왜 이래’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자녀가 가출했어요. 고통 많이 받았죠. 어떻게 치유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 앓혀 놓고 ‘아빠인 내가 온전치 못한데, 다른 사람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는 온전해? 그래 그게 해답이야.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해.’ 그렇게 설득하는 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예배시간에 자꾸 자요

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주일날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여기 자러 왔니?’ 할 만큼 예배시간에 잡니다. 토요일에 일찍 자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건 제 책임입니다(웃음).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시간에 자는 거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와서 자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목사입니다. 안 오게 하는 목사도 있으니까요.

제가 드릴 답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스파크가 팍 일어나게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꾸중하고 압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교회 안 가면 내 자식 아냐’ 그러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택한 백성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아드님, 정말 귀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 60일 정도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잘 키워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틀 안에 있는 것과 틀 밖에 있는 게 다 필요합니다. 우선 틀 안에



있는 것은 교회의 교회학교 부서에 보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틀 밖입니다. 그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나흘 지나도록 아이들과 말 한 번 못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카페 같은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했어요. 영적인 것 살피지만 스트레스는 안 주고요. 아이들이 압니다. 스스럼없이 와서 내 옆에 드러눕기도 하고.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시험 갖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자유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다고 한 자매가 울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기도의 비결, 응답의 비결,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 받는 건 어느 땐 맞고 어느 땐 아닙니다.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서 어루만져주시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전갈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생활이야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커가면서 동네 교회 다니거나 친구들 있는 데로 갑니다.

“원론적 대답은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가진 영적 자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락교회에 나올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영락교회 나가야 한다고 억박지르지 마시고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되 영락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영락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교회 공동체를 잘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어른들은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 40대가 정치, 기업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좀 변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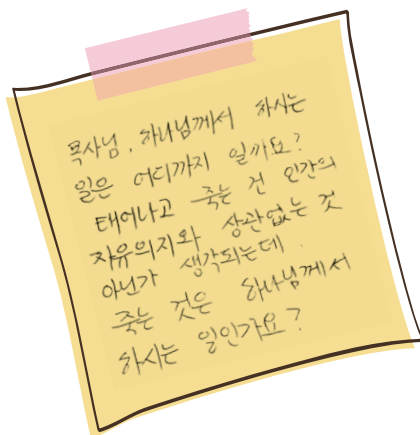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입니다. 청년들이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이만식 교수는 청년을 완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30대에 기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정치적 리더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바깥에서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아이 취급을 받아요.

여기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명석을 많이 깔아줘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많은 것들이 분출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어른들은 영적 울타리가 되어 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영락교회 안에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멘토링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조합을 이루면 좋을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플랫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영락교회는 앞으로 플랫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자산을 가지고 여기 모여서 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방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주택이 없어 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주일만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넘치는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교회 마당을 즐겁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명 소그룹 1000개 있는 교회

제가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들이 70세 넘은 은퇴 권사님들이세요. 서로 공감을 못 받습니다. 직장 여부나 나이에 따른 구역 시스템을 고민하고 나눔이 불가능할지도.

“한국 교회는 구역 중심 조직입니다. 그런데 구역은 한국 사회가 다원화하기 전의 시스템이지요. 한 동네 살면서 같은 교회 다니고, 지금은 직업, 근무 시간, 거주지 등 매우 다양해서 전통적인 구역 개념은 앞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구역 예배 가면 며느리가 당연히 따라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안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은 몇 년 안에 10~12명 모이는 소그룹이 1000개 생기는 것입니다. 구역은 거주지 기반으로 두고, 소그룹은 취미와 직종별로 기도 모임 등 다양하게 운영하면 선교와 섬김의 미션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드리는 회중 예배에서는 영락교회가 나갈 영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소그룹에서는 전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확실히이지 않고 다양하게 말씀과 기도 자료를 제자양육부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만남**

취재·정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사진 이상현 집사(영락포토), IT미디어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지난 2월 1일 시작한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은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영락기도원(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영락수련원(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열리는 기도회, 교회 본당과 벨엘기도실, 개인기도실에서 갖는 개인별 자유기도, 가정과 구역 모임에서 갖는 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모두 포함한다. 1인 1시간 기도에 1볼트를 충전한다. 기도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후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모범을 이뤄내고 있다. 이번 기도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을 개방하고 있다. 본당 개



방일에는 각 교구별 릴레이 기도회를 열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

기도대각성 운동은 '다음세대'의 참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정학습지 QT와 가정예배 「패밀리데이(FAMILY DAY)」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만남**

취재 정다운 기자 사진 이미혜 기자



전 교인이 참여하는 12만 볼트 충전(기도 12만 시간)을 목표로 시작한 지 45일 만인 3월 17일 현재 4만 2,108볼트를 충전, 목표의 35%를 채웠다.

성만찬과 부활 승리의 자신감



어린 시절 모(母)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 아침이면 마음이 들뜨곤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찬 떡으로 카스텔라가 주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성찬식 주일 하루 전이면 어머니는 제과점에서 부드럽고 맛있는 카스텔라를 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경건한 몸가짐으로 카스텔라의 겉면, 짙은 갈색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성찬기에 올리는 빵은 황금색의 부드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옆에서 혀를 내미는 강아지처럼 저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카스텔라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꽃 중의 꽃, 곧 버려질 갈색 겉면을 얼른 낚아채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린 때였지만, 성만찬의 또 다른 기쁨을 만끽하며 나뉠대로 주님의 몸을 느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성만찬을 대할 때면 어릴 때 맛보던 갈색 카스텔라의 달콤함이 떠올라 흐뭇해지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성만찬을 대할 때 사람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맛과 은혜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경험하는 맛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그 바라봄의 눈을 회개 눈물로 채우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게 되지요. 보다 엄숙하고, 보다 경건하며, 보다 차분하고, 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죄 사함의 진한 경험을 합니다.



차동혁 목사
서초교구
예배위원회 음악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성만찬 예배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만찬 예전만을 다룬 전문적인 신학 논문은 9세기나 되어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만찬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은 기독교 문서들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성만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성만찬을 하나의 독립된 신학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성만찬이 일상의 삶 곳곳에 배어있는 생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담은 2세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성만찬 예배와 일치하며, 성만찬 예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증해준다.”

이 글은 2세기 기독교 문서 중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한 『이단에 반대하여』라는 유명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에게서 신앙교육을 받고 프랑스 리옹에서 목회를 했던 2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레네우스가 쓴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단이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여 우리 영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박하며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서 나온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서 온 잔을 들어 그분의 피라고 선포하셨다. …(중략)…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길러진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을 육신이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육과 성령의 조화로운 교통과 연합을 선언해야 한다. 땅에서 온 떡이 주님의 축사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평범한 떡이 아니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구성된 성만찬이 된 것처럼,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육은 악한 것이라고 여겨지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이레네우스는 성만찬 예배가 몸의 부활 신앙을 굳게 지탱해준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개 천대받던 노예나 비천한 신분으로 자신감 없이 살아가며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던 그들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 예배는 미래에 얻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확증하는 자리이자 세상 조롱을 마음껏 비웃어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당당히 살게 해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성만찬 예배와 일치했고, 성만찬 예배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확증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눈물짓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까지 이르러 우리 몸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인답게 움직여내는 신앙의 자신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배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승리이자 자신감입니다. **만남**

독일에서의 첫 부활절



박소인 권사
성남·분당교구
갈보리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기도와 묵상 가운데 부활절을 기다리며, 독일에서 맞았던 첫 부활절을 기억해봅니다.

저는 40년 전 교회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 쾰른(Köln)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기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독교적이었기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쾰른 음대에 입학한 후 바로 독일 개신교(루터교)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고, 교회음악의 원조인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만든 예배순서(Gottesdienst Ordnung)에 따라 오르간 전주로 시작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카톨릭 미사처럼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많고 예전(Liturgy)이 많은데, 모든 순서는 오르간에 의해 진행됩니다. 때문에 오르가니스트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오르가니스트가 정말로 바쁜 시간은 성탄절을 앞 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오르간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바로 사순절과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들은 가을에 교회에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 봄이 됐다고 종종 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켈른(Köln)은 여름이 지나자마자 날씨가 흐리고 음산하고 춥습니다. 가을에 켈른에 도착해서 얼마되지 않아 겨우 내내 아마데우스 영화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같이 춥고 음산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바흐, 헨델, 파헬벨, 베토벤, 모차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레거 등 유독 많은 음악가와 오르가니스트들이 독일에서 배출된 것은 그들이 타고난 우수함과 종교성도 있겠지만, 날씨가 나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연구하고 연습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연조건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독일의 문학, 음악과 예술은 그 기본이 감정의 무거움(die Schwermütigkeit)에 기초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무거움 속에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교회음악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유럽의 사순절은 카니발로 시작됩니다. 카니발은 카톨릭 수도원의 관습으로, 사순절 금식을 앞두고 수도원 내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셔 버리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 켈른에서 겪은 카니발은 충격이었습니다. 켈른은 구교가 강한 도시인데, 유명한 켈른 성당을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카니발이 전개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을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 내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니발 의상과 가발을 쓰고 무리 지어 다니며, 소리 지르고 장난을 칩니다. 평상복이 어색해 보일 정도로 그 광경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의 수요일 아침이 되니 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란하기 짝이 없는 켈른의 사순절을 맞으며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 마다 영화관 등 유흥 장소에 가지 말고 근신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요.

한편으로는 교회음악의 원조 나라다운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백화점이나 거리의 상점 디스플레이가 교회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거리에서는 성탄절을 시작해 사순절, 부활절 같은 교회 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샵의 디스플레이는 기독교 절기를 참여하게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절기별 칸타타도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오자 음악샵에서는 값비싼 수난절 전집 음반들을 반값에 세일하였습니다. 그때 카를 리히터(Karl Richter)가 지휘한 바흐의 요한수난곡과 마태수난곡 두 개의 LP전집을 사서 내내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전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부활절이 가까워오자 신기하게도 하늘이 파랗게 맑아졌습니다. 회색빛 겨울이 물러간

것이지요. 상점들도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처음 부활주일 예배를 반주하던 날,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활절 찬송가들은 대부분 14~16세기의 노래들로, 그 당시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20장 정도의 부활절 찬송 중 제가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찬송가들은 장·단조가 아닌 교회선법으로 지어진 곡으로, 어찌 들으면 슬프게도 들립니다. 슬픈 음악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 음악 수준이 그들 예술의 “감정의 무거움”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무튼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폭발적인 찬양도 없고 아멘을 외치지도 않고, 진지하고 조용하게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사에 집중하려고 해도 익숙하지 않았던 그 찬송가들... 금관악기 앙상블이 함께 화려하게 연주했지만, 저에게는 그 찬송들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순서들이 지나고 어느덧 후주를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오르간 후주가 끝나자 예배 내내 미동도 없던 성도들이 오르간이 있는 2층으로 몰려 올라왔습니다. 아는 분도 있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저를 향해 “당케! 당케!(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부활절 예배의 부담과 예상치 못한 “당케!!”에 어리둥절한 채 가방을 싸서 나오며 어디 부활절 계란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본, 색색의 삶은 계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토끼 모양의 큰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귀퉁이를 깨물어 먹을 때 비로소 교회 앞 정원에 가득한 튜립과 노란 프리지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절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Jesus ist auferstanden! Ein gesegnetes O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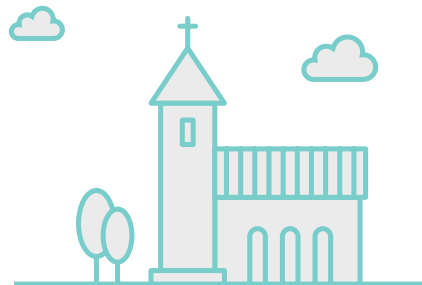
40년 후, 아름다운 영락의 뜰에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복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합시다

- 전도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현재의 교회 모습과 다른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변질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형식이나 교회 조직 등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당시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시작 때는 교회 조직(system)은 없었고 예수 운동(movement)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뒤이어 등장했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집사가 세워지고 조직화 되어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교사 등은 사도행전 이후에 점차 정립되어 갑니다. 복음이 계층적 및 지역적으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발전하게 되고, 목양도, 신학도 발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있어서 교회의 변화와 발전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조직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만,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system)이 아닌 유기체(organism)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움일 뿐이지 조직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조직과 유기체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는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아름다운 찬양과 멋들어진 설교들이 제공되는 잘 구성된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잘만 해내면 조직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력이 없이 단지 시스템으로만 잘 운영되는 교회라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지운 목사
전도부
서대문·은평교구

그렇다면 무엇으로 참된 교회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직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주인이신가입니다. 찬양에, 말씀에,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수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입니다. 즉 생명의 유무가 참된 교회를 담지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영락교회에 허락하신 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낳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교회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서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인인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은 다름 아닌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유무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세상에 자랑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영락교회 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명동거리로, 을지로역으로, 전국의 군부대와 10여 곳의 병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전도훈련을 받고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영락교회 교우 가운데, 전도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전도는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찬양대는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자원봉사부는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선택된 분들이지만, 전도는 그 누군가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자에게 전도의 사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전도부의 가장 큰 목표는 “영락의 모든 교인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영혼 구원의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는 교구별로 2명 이상씩 전도 실행위원이 구성되어 각 교구별로 전도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실행위원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교구의 전도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모든 분이 전도에 참여하시도록, 매달 첫 주 연합권찰모임 때 실행위원을 통해 교구별로 전도용품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전도팀에 소속되어 계신 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전도용품을 나누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구별 전도실행위원 구성의 목표는 그분들이 씨앗이 되어 교구별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도대만이 아니라, 영락의 모든 교구가 전도에 힘쓰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교인 전도 주일은 올해도 진행합니다. 올해는 ‘전도 대상자 접촉하기’에 더욱 강조점을 두려 합니다. 1만 2천여 분이 작정을 하시지만 정작 초청 선물을 받아가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분들은 300여 분에 불과합니다. 작정하고 전도하실 분을 위하여 기도는 많이 하시겠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전도대상자를 매주 만나 접촉하실 때 쓰시도록 매주 작은 선물부터 어느 정도 괜찮은 선물까지 3차례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도하고자 하신다면, 생명을 낳고자 하신다면 교회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선물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각자가 개인의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직접 손을 내밀어 대상자를 만나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훈련이 안되신 분들을 위한 전도훈련 프로그램도 지금까지처럼 제공됩니다. 영락교인이라면 필수로 수료하셔야 하는 전도폭발 훈련이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복음 훈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게 세울 뿐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이 이 훈련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됐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할 섬김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전도 세미나와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과 20일에 ‘되는 전도’ 훈련원장 임승채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4월 첫 연합권찰모임 때는 인천부광교회 김상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특강을 합니다. 상하반기 맞춤 전도가 진행됩니다. 먼저 6월에는 ‘3040 젊은세대’ 초청 전도 행사를 기획 중이며 하반기에는 ‘직장인 초청행사’를 직장인 예배 50주년 기념행사에 겸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전도나 병원전도, 노방전도 등 전도에 뜻은 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혹은 용기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도부에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본인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복음 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역시 전도부에 연락 주시면 잘 훈련된 전도자를 연결해 드려서 전도를 도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9년 영락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온 성도가 기도로 영적 대각성을 이루며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소외되는 분 없이 모두가 동참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님과 나



이수영 은퇴목사
새문안교회

나에게는 평생 변함없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신다. 나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두 분 중 한 분은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신 내 친조부 이기혁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 이시다.

두 분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큰 신앙적, 영적 그늘이 되어주셨다. 한경직 목사님보다 네 살 위셨던 할아버님과 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서로 가장 큰 친구이며 동역자셨다. 우리 교단 총회나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목사님은 늘 할아버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고 상의하시곤 하셨다고 들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나 서울여자대학교나 대광중·고등학교 등 한 목사님이 이사장이셨던 곳에서 할아버님은 어김없이 이사로 함께 일하셨다. 두 분은 서로 가정의 중요한 일도 함께 도우셨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설교를 할아버님이 하였고, 할아버님에 앞서 내 아버님이 돌



본 교회 협동목사 시무시절 남한산성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사진 좌측부터 필자, 최신은 전도사, 한경직 목사, 이성원 전도사, 이영현 목사)



선교사 환송연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필자(초등부 시절)



1961년 10월 세례입교를 마치고 (사진 앞줄 우측이 필자)

아가셨을 때 영락교회에서 행해진 장례식 설교를 한 목사님이 맡으셨을 정도로 두 분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분들이셨다. 그러니 두 분이 나에게 끼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한 목사님이 날 위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할아버님 이상으로 한 목사님의 강력한 영적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영락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고,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나 학교에서 종종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담임선생님 세 분이 모두 한 목사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시던 분들이었고 세 분 모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 밑에서 9년간 매주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내가 한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 또 대광중·고등학교 6년간의 역대 교장, 교감선생님들과 주요 보직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영락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셨으니 내가 한 목사님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 나의 나 된 데에는 대광교육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늘 말하곤 한다. 그런데 그 대광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한 목사님의 교육정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 목사님의 영적 유산을 크게 물려받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 시절 모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신학교 졸업 후 한경직기념사업회로부터 한경직기념장학기금에서 여비를 보조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두고두고 감사한다. 그리고 한때 협동목사로서 한 목사님이 서시던 영락교회의 강단에 서곤 했던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긴다. 오늘날은 목사다운 목사가 많지 않고 더욱이 한 목사님 같은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조금이라도 닮은 영적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여전히 품에 안고 살아간다. **만날**

가을별처럼

당신이 있어 우린 행복했습니다
 님의 온화한 미소는 사랑의 결정체
 주처럼 낮은 데로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아울렀던 그 사랑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환난과 질곡의 세월 속
 암울했던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러 헌신하셨던
 추양 한경직 목사

전후 혼란의 시기
 피폐해진 국민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며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
 열정을 다했으며
 분열된 한국기독교의 일치를 위해
 양보의 미덕을 실천했습니다

님은 사랑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였으며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었으며
 나그네 된 자들의 벗이며
 이 땅의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의 페스탈로치였으며
 군선교와 학원선교에 앞장선 선구자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통일을 열망한
 이 땅의 사도 바울이였습니다



님은 이 땅에서 빈자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준 무소유를 실천하며
 탐욕의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욕심이 없는 성직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님은 백합처럼 순결하였고
 천일홍처럼 늘 변함없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였으며
 민들레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널리 주님의 뜻을 전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외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습니다

님의 잔잔한 음성이 아직도 그리운데
 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직도 간절한데
 우리는 님을 보내야 했습니다

님이 떠난 영락의 빈터에는
 목련이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님이 바라던 못다한 열정들은
 눈물의 기도가 되어 이 땅을 적십니다

님이시여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광춘 집사
 성동·광진교구

맑은 그리스도인 한경직 목사님, 나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맑은 사람이 부족합니다. 정계에도, 관청에도, 군대에도, 상점에도, 공장에도, 가정에도, 사회단체에도 맑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1963년 7월 21일 주일예배 설교 중에서)

필자의 연구실에는 단 하나의 사진,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 걸려있다. 대학 재학 시절, 어느 겨울 방학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동계 수련회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을 때의 사진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 환히 웃으시는 사진 속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땅을 더욱 맑게 하는 ‘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다. 98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한경직 목사님 특집 원고 청탁을 받자마자 즉시 수락했지만,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 『나의 감사』(두란노 간)를 영문으로 번역(My Gratitude)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줄도 못 쓰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도서관에 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모음집과 조성기 교수가 쓴 『한경직 평전』을 집어 들었다. 1960년대 설교부터 꼼꼼히 다시 읽고, 평전을 정독했다. 한경직 목사님을 머리와 가슴에 품는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두 단어로 최종 정리하게 되었다.



이인성 교수
송실대 영어영문학과
베어드 교양대학장

‘겸손’

‘감사’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사역은 바로 이 두 단어에 집약된다. 다양한 주제의 그 많은 설교도, 그 많은 사역과 교육 봉사 선교 활동들도 결국 ‘겸손’과 ‘감사’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읽으며, 그 일부를 이 지면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가 독자들과 나누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주제들을 설교에서 직접 가져왔다. 우리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에의 응용과 적용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

“죄는 법과 같은 물리적인 제재로만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 깊은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1975년 10월 26일 주일예배 설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극기와 절제의 생활입니다. 쫓대를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나를 이겨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먹고 마시는 일을 이겨야 합니다.”

(1970년 9월 20일 주일예배 설교)

“친구끼리는 서로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968년 7월 7일 주일예배 설교)

“하나님은 양심적 교역자, 양심적 장로, 양심적 집사, 양심적 평신도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양심에 순복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1978년 2월 12일 주일예배 설교)

“청년기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인 까닭은 그 마음 밭이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양심이 맑고 이상이 높습니다. 인생의 깊은 뜻을 탐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청년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1967년 9월 17일 주일예배 설교)

한경직 목사님은 삶도 신앙도 인격도 영혼도 참으로 ‘맑은’ 그리스도인이셨다. 깊고 넓게 닦고 싶은 대선배님이시다. 필자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도 한경직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맑. 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한다. 필자는 10여 년 전 한경직기념사업회와 송실대가 협력하여 교양과정으로 「한경직 리더십」 과목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요즘 학생들, 신앙이 좋은 학생들까지도, 한경직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이 과목 덕분에 송실대에서는 많은 학생이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요즘도 이 과목은 많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송실대에는 영락교회 김덕운 권사님을 포함한 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한경직기념관> 이 있다. 이곳에서 전교생들이 매주 채플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바라기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두 기관인 영락교회와 송실대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 유산을 확산, 계승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 비율 3% 이하로 이미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한껏 선포되기를 소망한다.

열악한 주변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906년에 한국 최초의 4년제 대학 정식 인가를 받은 송실대학의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한국 이름 배위량) 선교사님. 1938년에 일제의 신사 참배에 끝까지 반대하여 자진 폐교를 결정한 국내 유일한 대학인 송실대학. 그 송실대를 1954년에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재건한 한경직 목사님. 그 신앙 유산을 오늘 우리는 반. 드. 시. 이어 가야 할 것이다. **만남**



의료선교는 처음이지?!



박종훈 성도
관악·동작·금천교구
초등부 교사



“리코(인간풍차돌리기)! 리코!” 두 팔을 높이 들고 놀이기구를 태워 달라고 외치는 어린 아이들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몰려와서 업히고 달라붙어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릴 적 동네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료선교 신청,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비하심

2019년 필리핀 의료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의료선교에 대하여 궁금했고 꼭 참여하고 싶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의료선교 모임에 갈 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가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저를 포함한 9명의 청년 모두 의료선교가 처음이었고, 선교부에서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2월 1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질서도 없고 구분도 없는 복잡한 세관 심사 줄이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팀원들은 각자 개인에게 부여된 공용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세관을 통과해 버스에 짐을 싣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이전 의료선교를 가면 공용 짐 중 문제가 되어서 세관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거나 심지어는 하루 이상 또는 아예 반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모든 짐이 무사통과 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월드미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풍선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풍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고 현지어와 영어도 잘 하지 못해서 사역 전부터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묵상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직관적인 한마디로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웃으면서 검지를 펴서 “원 라인(One Line)”이라고 짧게 말하니 아이들이 한 줄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어린이들은 저를 보면 원 라인!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료선교

아동사역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의료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의료사역은 마치 종합병원과도 같았습니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약제부로 나누어져서 진료와 약 처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사역이 육체를 치료한다면 전도팀은 몸이 아파서 온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영혼구원사역으로 협력했고, 환자분들의 자녀를 돌보고 현지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아동사역으로 선을 이루었습니다.



의료선교 현장은 기도로 시작된다. 진료는 각 분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이들과 뛰어노는 시간도 소중한 선교 경험이었다.
사진 제공 의료선교부

4일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아동사역은 3일째 되는 날 티셔츠, 팝콘, 풍선, 사진 등 준비해 간 물품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차를 타고 월드미션센터에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들은 의료선교팀에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이파이브하며 다가왔고 어제 신나게 놀았던 낮익은 아이들은 나무 위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의 선교사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교는 그저 이곳에 와서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아이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됐습니다. 협력했던 의료선교팀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영락교회도 되는 거였어!

-청년부 전체수련회를 마치고



지난 3월 9일 드림홀에서 ‘M-V-P(Mission, Vision, Passion) Awakening’을 주제로 2019년 청년부 전체수련회가 열렸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에베소서 5:14)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열정을 가지고 깨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모았다. 말씀과 나눔 시간을 포함해, 청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교역자들이 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번 수련회가 특별한 이유는 여럿이다. 올해부터 청년부예배와 젊은이예배가 분리되었다. 최재선 목사님과 임민국, 김성광 전도사님이 모두 새로 오셨고, 예배팀이 청년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이번 수련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 첫 수련회로 큰 의미와 기대를 모았다.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 동안 많은 청년들과 교역자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위임목사님 말씀에 따라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도였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자리를 준비해도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도를 하면서도 ‘청년들의 반응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나의 머릿속에도 ‘영락교회에서는 (청년 행사가) 큰 호응을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



김형재 성도
청년부 청년회장



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셨다! 수련회를 시작하는 시간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예배 시작 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찬양팀이 노래하고 워십팀이 워십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년들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교역자들도 청년들과 함께했다. 그동안 수련회를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를 포함해, 수련회를 기획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 마음 상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놀라운 변화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늘 부르던 찬송이었고, 늘 무대에 오르던 사람들이었다. 장소도 동일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하나 있었다. 수련회 준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도록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다.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정훈 장로님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파악하셔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다. 새로 부임하신 최재선 목사님도 열정이 넘치셔서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 순서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신다. 올해 함께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많은 청년 리더들 역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며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 교회로 찬양집회를 다니는 한 청년이 던진 질문이 있다. “영락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러 찬양집회에서 느꼈던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위기를 영락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겠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 했던 것이다. 이 청년이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영락교회도 되는 거였어!” **만남**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용인·화성교구로 이사와 18교구 31구역을 1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권찰로 시작해서 구역장이 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삼성 '노블카운티'라는 실버타운과 남사면을 포함합니다.

구역 설명에서 짐작하시겠지만, 구역 식구 분들은 젊은 시절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역 식구'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식구는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가장 가까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며 영적·육적 사랑의 식탁에서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구역은 구역예배를 통해 신앙을 회복시키며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생각과 삶을 바로잡으며 나아갑니다. 구역예배는 권사님들이 주로 사시는 노블카운티에서 드립니다. 권사님들께서 예배 장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은 물론 사랑의 식탁과 간식까지 돌아가며 모두 준비해 주십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가정이 새로 들어와 더욱 밝아진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더욱 화목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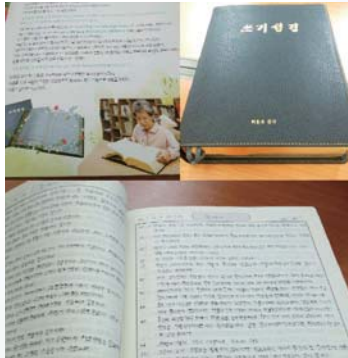
남사에 살고 계신 집사님은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혼자 지내십니다.



이아미 권사
용인·화성교구 31구역장



어느 화창한 봄날, 구역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봄날
우리 구역 권사님들은
몸도 마음도 아파서
서러우셨나 봅니다.
저도 한참 동안이나
마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니
마음의 먹구름이 눈물로 녹아서
다시 봄빛이 되었습니다.

노블카운티에서 자동차로 30분쯤 거리에 계시는데, 『만남』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시지만, 저는 직접 ‘배달’합니다. 『만남』을 들고 찾아가서 집사님과 나누는 만남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시는 데 감사드리며,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옵니다. 늘 반겨 맞아 주시고 텃밭에 나는 것들을 올망졸망 싸 주시며 가을엔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싸 주시곤 합니다. 그러한 따뜻한 정을 나눠 주시면 돌아오는 길 제 마음도 풍요롭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노년의 외로움과 육체의 쇠약함과 편찮으신 데서 오는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17년을 섬기다 보니 칠십대셨던 분이 이제 아흔이 되어 가시고, 이미 소천하신 분도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처음 너싱홈에 계신 성도님을 심방했을 때 뇌수술을 받고 퇴원해 누워 계셨던 분은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고 얼굴은 온통 부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

지만 십 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발음이 편하지 않으셨지만 “영락교회 구역장 왔어요” 말씀드리면 눈을 번쩍 뜨며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옛날 예배드렸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도 생각합니다.

구역식구 자랑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식구들은 사랑과 화평과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십니다. 예배드릴 때도 사랑의 식탁 때도 모두 잘 섬겨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주변 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성경 친구약을 필사하고 지금도 주보에 실린 이달의 암송 구절을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늘 과일과 간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일기도 매일 쓰시는 명랑소녀 집사님, 늘 사랑의 식탁을 마련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 모두 든든하게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겨 주시는 자랑스러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구역은 작은 세포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세포 끝까지 활기차게 잘 공급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구역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역으로 계속되길 기도드립니다! **만남**

행복한 삶의 조건

- ‘좋은 관계’란 실망할 때도 좋은 감정을 지키는 것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필요로 한다. 대관계이론의 많은 학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욕구가 관계 욕구라고 말한다. 집단정신치료의 대가인 알론(Yalom)은 “사람은 누구나(말기 암환자이건,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건, 엄청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건, 집단에 관심이 없거나 초연한 환자들이건 간에) 최초의 생존과 그 생존의 연장을 위해, 사교적인 교제를 위해, 만족의 추구를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도 인간 접촉의 욕구를 초월할 수는 없다”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관계의 중요성: 나를 알아주는 정서적 접촉

인간의 관계추구 욕구를 증명한 해리 할로(Harlow)라는 학자는 유명한 실험을 했다. 커다란 실험실 우리 안에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와 분리해 놓고, 우유가 나오는 장치를 단 철사 원숭이와 우유 공급 장치는 없지만 뼈대를 천으로 감싸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하는 원숭이를 넣었다. 관찰해 보니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주는 원숭이에게서는 잠깐 우유를 먹고 하루 종일 천 원숭이에게 가는 것을 발견했다. 위기상황이 일어나거나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아주 어릴 때는 접촉이 곧 관계이다. 어릴 때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실제로 하는 것은 응시, 만져주는 접촉이다. 성인이 되면서 접촉은 만져주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정서적 접촉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대상(對象)관계이론은 주체인 나와 대상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격을 이루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대관계이론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삶의 최초의 중요 타자인 부모와 수많은 초기상호



작용은 잔재의 형태로 내면에 들어오고 이 잔재가 쌓여서 틀을 형성하는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내면화된 프레임은 이후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대관계의 내면화를 안정-불안-회피애착으로 각기 유형화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안정애착은 돌보는 이가 아이의 욕구나 반응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맺는 관계를 형성한다. 돌보는 이들이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이다. 불안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이다. 신뢰감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로, 세상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높다. 이는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마다 반응이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의존적이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이 불안애착의 특징이다. 회피애착을 형성하면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거리를 둔다. 일정한 거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면 위협적으로 느끼고 불편해하는 것이다.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두려움이 생긴다

관계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구별된다. 먼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삼켜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비어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한 번 상상해 보라. “나는 누구에게 버려질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가?” 우리가 최초로 이 감정을 느낀 대상은 보통 부모이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첫 번째 경험은 엄마와의 결별로 시작된다. 한 몸이었던 엄마와 아이가 탯줄을 끊고 분리된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한다. 관계가 중요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진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모으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삼켜짐에 대한 두려움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너무 밀착돼 있고 너무 의존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어떨까? 그 관계에 내가 삼켜져 자신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붙어 있으면 삼켜질까 봐 두렵고 떨어져 있으면 버려질까 봐 두렵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하는 엄마는 아이와 잘 지낸다. 그런데 버려질까 봐 두려움이 큰 엄마는 아이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허락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삼켜질까 근심한

다. 삼켜짐에 대한 주제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상실에서 오는 두려움은 자신의 내부에 비어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비어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빈 수레인 사실을 타인이 알까 봐 전전긍긍한다. 자기 자신이 심하게 비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을 허락받는다. 타자의 욕망에 맞게 자신을 꾸미고 입히고 차를 사고 자녀도 키운다. 그들이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누군가 보기에 괜찮아야 한다. 내가 안에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는 피드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두려움이 큰 사람은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두려움이 큰지, 내 배우자의 두려움과 아이의 두려움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려움의 특징들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갈등 원인을 살펴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귀하다” “잘할거야”가 좋은 관계 만들어

정신치료의 대인 관계적 모델을 제시한 설리반(Sullivan)은 치료자들이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정신역동적 접근을 모두 의미 있게 종합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모델로 ‘대인관계적 틀(frame)’을 제시했다. 설리반은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중요한 타자로부터 ‘예쁘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너는 잘할 거야’ 등의 말을 수없이 듣고 자라면 좋은 형태로 관계를 맺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과 상호작용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자라면 부정적인 성격과 자기 예언을 가지게 된다. 부모가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를 짐처럼 여기면 자녀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는 짐이 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자기 예언을 활성화시키고 짐이 되지 않으려는 치열한 노력을 여러 관계에서 반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다.

한편, 부모화된 아이들은 부모가 어른 같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이런 아이들은 내적 구조에서 주변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른 나이부터 맡게 된다. 이런 구조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매우 통제적인 형태로 주변관계에 작동될 수 있다. 지속적 관계에서 너무 통제적인 사람은 숨 막히는 관계를 만들고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결국 누군가를 좌절시킨다.

그렇다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온통 좋은 관계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관계는 한 대상에 대해 실망을 경험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지니는 힘, 사랑과 증오를 함께 지닐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 내부에도 적용된다. 자신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온전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지니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수용하는 힘이 자신과 잘 관계하는 사람의 힘이다.

나이가 들어도 대상을 전적으로 좋은 대상, 전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다. 내 편은 선하고 남의 편은

전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경우가 이런 사람의 특성이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나쁘고 어머니는 전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분류한다. 성숙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하여 좋고 싫음을 함께 지닐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천박함, 수치스러움을 목격할 때에도 내 속에 강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자존감이고 내적인 힘이다. 자신의 악함을 혐오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가장 고급한 관계 전략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하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기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 자기이해의 부재가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아래의 자기이해 체크리스트를 보고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아래 주제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일구어 가려면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일은 나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으며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잘 견디는 감정과 잘 견디지 못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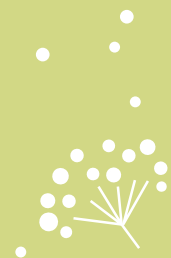
나의 의사결정 방식은?

내가 잘 지내는 사람(학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내가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학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동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면……”이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면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저와 친구가 되실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아실 거예요’ 등등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킨다면 심리적 자본이 넉넉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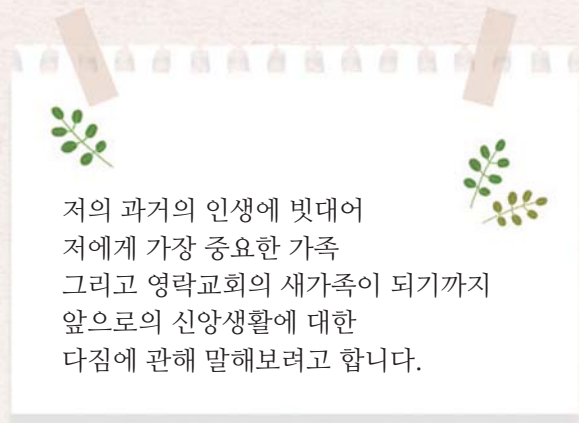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멀리하실 거예요’, ‘나를 떠나실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아신다면… **만남**

영락의 새가족이 되기까지

정상원 성도
강남교구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영락교회의 일원이 된 정상원입니다. 영락교회의 일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를 다닌 지 4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락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하면 여자친구가 절대로 결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입니다. 다행히 5주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벚꽃 피는 4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새가족 과정을 들으면서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렵듯이 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5주간의 짧은 과정이었지만, 앞으로도 새로 교육받고 참석할 과정이 많기에, 궁금한 점을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출근 살아온 분들과 상당히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태어나, 미국, 스위스, 방글라데시,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18년간 살았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마다 바뀌는 주변 환경, 학교,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저는 외로웠지만, 항상 옆에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족'이라는 것은 저에게 남다른 존재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에 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지문이 닳도록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게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못 먹게 했던 음식도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주말이나 방학 때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 혼자 있을 때 많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사진 오른쪽이 필자)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덧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프랑스 출장 중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저는 여자친구가 귀국한 바로 다음 날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교회 다니는 남자 아니면 안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주 일요일에 영락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면서 매달 초과 근무수당을 휴가로 대신 받아, 한 달에 4일 정도 한국에 와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듣고 나면 언제나 인생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미래의 장모님께서 한글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서 첫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이 변해왔던 제게 처음 안정적인 일상이 생겼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만의 가족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항상 저의 가족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있어 주었고, 영락교회 또한 영락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집으로 항상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부족하지만 돌이켜 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모든 순간에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대화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디에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가족이 저에게 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키워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남**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For Us

종이 위에 연필화
39.3x54.5cm
2018



지금까지 많은 그림을 그리고 연습해 왔습니다만, 저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추상적인 것과 거리가 먼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시관 쓴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생이었던 2004년, 정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을 그리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셨는지 보지 못한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모습을 그린 이유는, 저를 포함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상처 입은 예수님 모습을 그리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지금껏 죄를 지어 왔음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니다. 이 그림을 통해 많은 분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만남**

그림·글 이상진 성도(대학부 40기)

“ 3월 31일
영락사회복지재단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매년 따스한 봄이 오면 영락사회복지재단과 어깨동무가 되어주실 후원자님들을 만납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의 후원자님은 영락의 어깨동무입니다.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은 소외된 작은 이웃을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어깨동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모자 가족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락의 어깨동무는 현재 3천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 많은 후원자님의 어깨동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가족들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과 어깨동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어깨동무 캠페인은 ‘행운을 선물하는 행복한 주인공’을 주제로 3월 31일(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영락교회 베다니광장과 봉사관마당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열립니다. 이날 찬양예배는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주보 안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통해 영락사회복지재단의 12개 시설을 모두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

깨동무를 하고 계신 후원자님들의 나눔과 사랑의 힘을 보여드리고, 동참해 주실 어깨동무 후원자님을 초대합니다.

베다니광장과 봉사관마당에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깨동무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

- ① 잠자고 있는 동전을 모아라!에는 그동안 가득 모으신 저금통을 들고 오세요. 저금통이 없는 분들, 또 이날 저금통을 비우신 분들께서는 예쁜 하트 저금통을 드립니다.
- ② 카카오플러스 친구 가입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영락사회복지재단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③ 신규 후원자 기념촬영을 해드립니다. 예쁜 홍보판을 배경으로 신규 후원자님 가족사진을 찍어드려요.
- ④ 행복의 주인공을 찾아라!는 지난해 신규 후원자 홍보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 사진 찍어온 분들께 카페 쿠폰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가입하신 분들은 꼭 자기 모습을 찾아보세요.

주 하나님 크시도다

- 2019 부활절 찬양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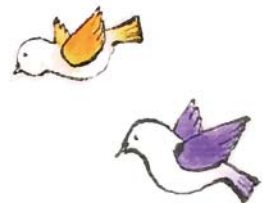
취재 이현지 기자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찬양예배가 4월 21일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를 주관하는 호산나찬양대는 ‘연합찬양’이라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지휘자 장세완 안수집사(사진)를 만나 2019년 부활절 찬양예배를 살펴보았다.

“이번 부활절 찬양예배는 호산나찬양대와 호산나오케스트라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소년부 어린이들, 장년으로 이루어진 ‘조이풀 시너스’가 함께합니다. 연합찬양을 통해 온 세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음악회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데이빗 클라이즈데일(David Clydesdale)의 ‘주 하나님 크시도다(How Great Thou Art)’ 칸타타를 중심에 두고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부활 하셨다’ 등 평소 친숙하게 부르는 찬송가들로 구성했다. 칸타타(cantata)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많이 연주하는 음악형식으로, 기악 반주를 갖춘 성악곡이다. 독창과 중창, 합창을 다 담고 있는데 대개 처음과 끝 곡은 합창으로 한다.

“‘주 하나님 크시도다’ 칸타타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구성한 곡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기에 부활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데 꼭 알맞은 연주가 될 것입니다.” 장세완 지휘자는 “온 교우가이 연주를 통해서 크게 감동하고 역동적 힘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김태영 안수집사

장세완 지휘자는 어려서부터 많은 훈련을 통해 음악적 잠재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교회의 음악적 장점이자 힘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교회음악 전문인이 되는 특별한 과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교회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중에서도 합창은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합창은 사람의 소리가기에 가장 순수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축제일 것입니다.”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

칸타타 ‘주 하나님 크시도다’는 1975년 작이다. 데 이빗 클라이즈데일은 예루살렘의 한 거리를 걷던 중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썼다. 주요 선율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찬송가는 스웨덴 시인이자 저술가인 칼 구스타브 보버그(Carl G. Boberg, 1859~1940)가 스웨덴 전래민요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이를 스튜어트 하인(Stuart K. Hine)이 영어로 번역해 영어권 국가에 소개한 이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됐다.

칸타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담았다. 각 악장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찬송가 선율이 등장한다. ‘거룩한 성’,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부활하셨다’ 등이다. 이들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주 선율과 잘 조합해 청중과 합창단이 함께 은혜 받을 대서사시로 재탄생시켰다. 칸타타에 등장하는 곡들은 다음과 같다.

Cantata

1. 주 찬양해 호산나
Let Heaven Ring Hosanna!
2.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 (Interlude)
3. 우리는 보았네
We Will Not Forget
4. 주께서 기억하시리
He Won't Forget Whose Child You Are
5. 체포
The Arrest
6. 너 무엇을 하려나?
What Will You Do With Jesus?
7.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Let Him Be Crucified
8. 죽음의 거리
Via Dolorosa
9. 위대하신 여호와
Great Is Jehovah The Lord
10. 창에 찔린 하나님의 외아들
When They Pierced Your Side
11.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
12. 오 놀라운 주 사랑
And Can It Be?
13.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14.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15. 예수 부활하셨다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16.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 (Finale)
17. 할렐루야대합창(피날레)
Hallelujah Chorus (Finale)

그날의 뜨거운 외침을 새기다!

- 오페라 <함성 1919>



사진 제공 고려오페라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 <함성 1919>가 지난 3월 1일과 2일 여의도 KBS홀 무대에 올랐다. 원로 작곡가 박재훈(97) 목사가 4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창작 오페라를 이기균 예술총감독 및 지휘, 양수연 연출로 무대에 올렸다. 박재훈 목사는 1500여곡의 교회음악을 작곡한 '한국 교회음악의 아버지'이자 '어머님의 은혜' 등을 작곡한 거장이다. 격동의 역사를 직접 겪은 그는 이번 오페라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화합을 도모하는 뜻을 펼치고자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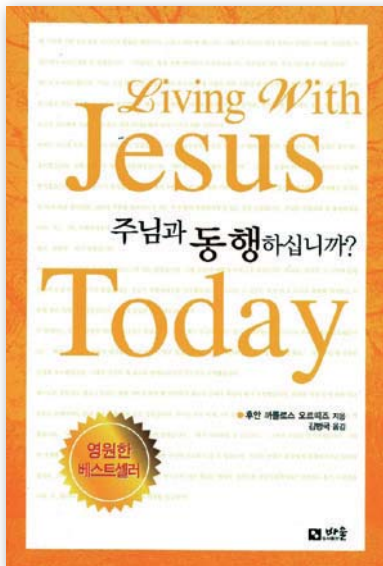
2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함성 1919>는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1막은 일제에 의하여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일제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와 원성이 높아지는데서 시작한다. 3월 3일 고종의 인산(장례식)을 보러 전국 8도의 백성들이 서울에 모이는 가운데,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항일운동 거사를 논

의한다.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이승훈, 이필주 등이 대표적이다. 2막은 총독부가 동요하는 민심을 살피며 감시를 더 한층 높이는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준비 과정에서 논쟁이 오가지만 3.1운동은 비폭력·평화운동임이 분명하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일제는 비폭력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다. "대한독립 만세" 외침은 오페라를 통해 합창이 되어 울려 퍼졌다. 모진 고문에도 대한독립을 외친 유관순과 김마리아의 아리아는 관중의 심금을 울렸다.

이번 공연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3.1운동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 안에서 진행됐음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많은 오페라가 귀족들의 삶과 사랑을 노래하지만, <함성 1919>는 달랐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민중들의 목소리를 조명하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아이들도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지막 애국가 합창은 웅장하고 비장했다.

취재 이현지 기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Juan Carlos Ortiz)는 아르헨티나 출신 복음 사역자로, 성공한 오순절 파 목회자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털 캐시드럴교회 목사를 지냈다. 197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는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으깬 감자’라는 설교로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으며, 그의 명성은 당시 철의 장막 너머에 있던 동유럽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는 1983년 첫 출간된 책으로, 1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내

용은 근원적인 문제에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로교 인 영락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주제도 있다. 쉬운 주제인 듯 보이지만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성숙한 신자

성장의 문제에 대해 저자는 숫자상 성장만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개념입니까? 아니면 생명 되신 그분입니까?” 물으며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성장이란 생명의 결과이며, 예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등 모든 덕목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성화(聖化 · sanctification)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루터교 등 교단별로 이해가 다르고 목회자에 따라서도 접근이 상이하다.

루터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교파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3대 기치를 내걸고 바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시작된 순수 복음 운동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때로 형식적인 예배시간이나 교회건물 안에서 경건하게 무릎꿇고 있을때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임재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곳에서나 하루 24시간, 일주일내내 우리안에서 함께하시고 살아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 후안 가를로스 오르띠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중에서

칭의(justification) 또는 의화(義化)는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과정, 상태이며, 인간이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의롭게 됨’ 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뜻하며, 기독교 신학에서 속죄를 통해 죄의 용서와 내면적 쇄신과 동시에 죄인들이 의로워졌다고 선언 받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행위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한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칭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다.

현재 성령 충만함과 새 언약

역사상의 그리스도, 정적인 지식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님은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이다. 2000여 년 전 예수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경험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본질은 현재의 주님, 현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저자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소설이나 지식충전을 위해 읽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해했다. 옛 언약은 문자이고 새 언약은 영이다. 주님 자신이 영이시다. 바울은 옛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옛 언약은 사람들의 외부에서 역사한 반면, 새 언약은 사람들의 내부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약속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고,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새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기정사실이다. 일단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또다시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신앙을 의인(義認)은 물론 성화(聖化)의 단계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신앙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전개 속에서 신학적인 발전과 변모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으로, 신의 예정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보는 고마루스파(Gomarists)와 타락 이후로 보는 알미니안파(Arminians)의 대립,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원방기로 정해진 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대립, 천지창조로부터 완성까지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실현과정으로 보는 계약신학(언약신학)의 성립 등이다. 이 같은 발전

과정에서 칼빈주의는 근대 서유럽의 문화, 경제, 교육, 정치 그리고 복지를 포함한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근대주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모든 규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율법 시대에도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생각하신 하나님이다. 주일 아침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일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예배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이다. 개념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경(Living Bible)'이 중요하다.

건물 없는 교회와 교파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이다. 빛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은 가정이다. “오르띠즈 형제님, 당신은 뭘 모르고 있어요. 너무 이상을 좇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세요.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저자는 자신을 향한 이러한 비난에 대해,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당신의 교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거기에는 단지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주교 신자와 오순절파 신자, 또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나란히 두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분열과 불일치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 자꾸만 무엇을 덧붙인 결과이며,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에는 화평의 지혜와 분열의 지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 중심의 일치를 이뤄야 한다.

인도하심

성령의 삶이란 주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한 것이다.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과 생활을 나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성인들처럼 보였지만 거룩한 위선자였고, 세리들은 정직한 죄인이었다. 주님은 거룩한 위선자보다 정직한 죄인을 더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재빨리 복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이 책은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한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만남**



양지청 장로
서초교구
CebC 부장

2019년 영락화랑의 주제는 '예수의 12제자'입니다.

명화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인간적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 예수의 길을 본 사람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명 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들이다. 두 사도를 구분하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을 큰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

큰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던 중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마 4:22) 예수를 따라나선 데서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창 12:1)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형제 요한 및 베드로와 함께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예수께서 죽은 소녀(어느 회당장의 딸)를 다시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 후 기도하실 때 세 사람만을 동반하지 않았던가. 세 사건은 모두 예수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사건은 부활의 능력을,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은 예수의 왕적 (또는 메시아적) 지위를 드러내며 마지막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다. 바로 이런 중요한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다.

그런데 위의 세 번째 사건 전에 눈에 띄는 2개의 일화가 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은 일이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으로 보아, 야고보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즉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막 10:37)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요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점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스승 가까이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현장 속에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 그 길을 보게 되었다. 영광으로 난 길에 고난과 죽음의 관문을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열두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됨으로써 그 관문을 통과했다.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4월의 상영작



길 (La Strada, 1954)

감독 : 페데리코 펠리니

주연 : 안소니 퀸, 줄리에타 마시나, 리차드 베이스하트

상영시간 : 1시간 44분 등급 : 12세관람가

천사같이 마음씨가 곱지만 어딘지 좀 모자라는 순박한 소녀 젤소미나는 짐승 같은 곡예사 잠파노에게 팔려가 그의 조수가 된다. 잠파노는 가슴을 칭칭 묶은 쇠사슬을 끊는 묘기를 보이고 젤소미나는 북을 치고 춤을 춘다. 안소니 퀸과 줄리에타 마시나의 열기가 두드러지는 고전 명작.

7일



14일

엘리펀트 맨 (The Elephant Man, 1980)

감독 : 데이빗 린치

주연 : 안소니 홉킨스, 존 허트, 앤 밴크로프트

상영시간 : 2시간 4분 등급 : 15세관람가

다발성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메릭은 서커스단에서 갓은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 엘리펀트 맨으로 불리게 된 메릭은 걸로 보기엔 끔찍한 기형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피하기 위해 늘 머리에 자루를 쓰고 다니지만 내면에는 훌륭한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 아름다움과 추함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 (2011)

감독 : 천정훈 주연 : 한경직, 정애리(내레이션 목소리)

상영시간 : 1시간 26분 등급 : 전체관람가

빛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바라 본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믿음이 척박한 땅 대한민국,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질곡 같은 역사 속에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픔을 눈물로 기도한 한 남자가 있다. 종교를 뛰어 넘어 사회의 가장 큰 어른, 소외된 이웃들의 울타리,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 故 한경직 목사의 98년간의 기적 같은 여정을 따라간다.

21일



28일

애니 (Annie, 1982)

감독 : 존 휴스턴

주연 : 앨버트 피니, 캐롤 버넷, 버나뎃 피터스

상영시간 : 2시간 10분 등급 : 전체관람가

1933년, 공황기의 뉴욕 시립아동보호소에 억만장자인 워벅스의 여비서 그레이스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동안 워벅스 씨와 함께 지낼 아이를 찾던 중 고아 '애니'를 발견한다. 워벅스 씨는 애니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현상금을 건다. 가짜 부모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갖은 소동 끝에 애니는 워벅스 씨의 양녀로 입양되고 파티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밤을 깊어간다.



2019년도 향존직 선거...장로 1명 안수집사 17명 피택



2019년도 향존직 선거를 지난 2월 17일과 24일, 3월 3일의 주일에 3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장로 1명과 안수집사 17명이 피택되었다(피택자명단은 하단 상자 기사 참조).

향존직 선거 종료 직후, 3월 6일 2부 수요기도회 후에 향존직 피택자 감사기도회가 봉사관 지하예배실에서 있었다. 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겸해 드려진 감사기도회는 선거집행위원장 김순미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교회 중직자의 올바른 신앙과 삶의 자세를 위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향존직 선거로 선출된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들은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교회창립 74주년 기념주일(12월 1일) 임직식에서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게 된다.

장로 피택자 : 조성환 안수집사 피택자 : 한요셉 유병천 이응준 이형일 김건철 김정훈 매재원
이영진 황규도 최익준 윤창완 이두희 정일천 김재원
조지형 양동철 이승석

취재 장덕진 편집기획위원 사진 제공 선거집행위원회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믿음의 가정, 복된 가족'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2월 18일(월)부터 23(토)까지 매일 오전 6시(토요일은 6시 30분)본당에서 열렸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사랑스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드린 이번 기도회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족'을 주제로 많은 영락의 가정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열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김운성 위임목사는 영·유아·유치부에서 아동부, 중·고·대학부, 사랑부, 청년부와 자유인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육 부서에 속한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적 성장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히 매일 집중 부서를 선정하여 각자 가슴으로 준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다. 일주일간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특별새벽기도회에 참가한 영락의 가정들에게는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의 복된 가정을 함께 세워 가기로 다짐하는 소중한 영적화합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교회 홈페이지·원종석 기자

제자양육훈련부, 신앙성장로드맵 구축한 양육·훈련과정 개강



2단계 핵심과정 6반(박성은 목사)

올해 새로이 신설된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양인성 장로)는 영락 성도들이 새가족 등록에서 교회의 일꾼(리더)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신앙성장로드맵을 구축했다. 지난 2월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 사전접수 및 온라인을 통한 등록신청을 받아 3월 10일(주일)부터 2단계 핵심과정 10개 반과 3단계 훈련과정(소그룹 리더 및 새가족 리더훈련) 4개 반이 각 분기 8주 과정으로 개강했다. 구약반과 신약반 등이 포함된 2단계 양육 일반과정도 이날 개강했으며, 수요 핵심과정은 3월 13일(수)에, 2·3단계 양육훈련 집중과정은 14일(목), 2단계 양육 일반과정에 속한 성경통독반과 성서지리반은 15일(금)에 개강했다.

제자양육훈련부를 담당하는 김응신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훈련과정이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그 파급력으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신앙교육으로 정착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7일 당회 결의에 따라 2단계 양육과정인 5개 과목(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수료가 직분 추천의 기본 자격요건으로 정해졌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할렐루야찬양대 창단, 수요1부기도회 찬양 담당



수요1부기도회 찬양을 담당하는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이영문 안수집사)가 출범하여 지난 3월 6일(수) 수요1부기도회 시간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수요1부기도회는 창단을 축하하며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찬양

대는 지휘자 안정현 선생, 반주자 박미라 선생과 오디션을 통과한 104명의 찬양대원들로 찬양대석이 은혜 속에 채워진 가운데 첫 찬양 ‘은혜 아니면(조성은 곡)’이 본당 안에 울려 퍼졌다.

초대 대장을 맡은 이영문 안수집사는 “아름다운 찬양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창단 소감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제공 할렐루야찬양대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기독교학교대회 개최

전국 20여개 기독교학교 1천여 명 모여 3.1운동 정신 계승 다짐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와 학생들이 보여준 신앙과 민족사랑 정신을 오늘날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기독교학교대회’가 지난 2월 21일(목) 우리 교회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학교연맹 등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과 드림홀에서 열렸다. ‘기억(Remember)하여 함께(Re-Member)하다’를 주제로 전국 20여개 기독교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일반 성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오전 1부 행사로 드림홀에서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의 공헌과 항일 역사를 회고하며 기독교학교의 미래 과제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오후에 열린 2부 행사는 베다니홀에서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삶을 조명한 특별공연,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회,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학술대회에서는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역할’ (이덕주 전 감신대 교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항일’ (임희국 장신대 교수),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박상진 장신대 교수) 등의 학술발표를 통해 3.1운동에 끼친 기독교학교의 공헌을 역사적으로 되새기며 기독교학교의 긍지를 회복하고 민족과 국가, 사회를 향한 사명과 과제를 새롭게 조명했다. 오후에 진행된 2부 행사는 전국기독교학교 입장식으로 시작되어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의 인도와 전명구 목사(감리회 김독회장)의 설교,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김순미 장로(영락교회 선교부장)의 환영사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진 비전선포식에서는 ‘2019년 3.1학생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 기독교학교 선언문’이 발표됐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를 본받아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뿌리내린 신앙교육과 전인 교육을 통해 영성, 인성, 지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학교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1운동과 기독교학교’에 대한 교육교재가 제작 배포됐으며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 및 교육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3.1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실 ‘100년의 외침, 복음의 정신’ (<http://www.100samil.org>)도 문을 열었다.

취재 김경옥·이현지 기자 사진 설경문 집사

전세대가 함께 드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간구했다.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시편 33:10~2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예배의 후반부에는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한 특별영상 시청과 대한독립만세 삼창이 이어져 그날의 감격과 합성을 재현하기도 했다. 한편 예배를 마친 많은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념관 친교실과 베다니광장에 설치된 3.1운동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신앙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복음의 역사와 말씀 속 진리를 정리한 시간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가 지난 2월 11(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이번 통독사경회에서 통독 과정을 인도한 김정희 목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 순으로 정리된 신·구약 읽기표를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역사를

를 잘 정립하고 말씀 속의 진리를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했다.

이번 통독사경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 교역자들이 사경회 현장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했고, 금년에 대학에 입학한 젊은 청년이 부모와 함께 사경회에 참석하는 등 젊은 세대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한편 사경회 기간 동안 강박·도봉교구 여전도회 회원들이 등록 및 접수,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하며 통독사경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자양육훈련부 전교인 겨울특강, ‘피플퍼즐 세미나’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양인성 장로)는 지난 2월 24일 2부 예배 후 봉사관 505호에서 전교인을 위한 겨울특강으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퍼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응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빛으신 우리 모두는 장점과 약점,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4개 항목의 표현에 각 개인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종합하여 ‘D스타일(주도형), I스타일(사교형), S스타일(안정형), C스타일(신중형)’의 결과도출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각 성향이 지닌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성경 속 대표적 인물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각 유형을 살펴보고, D/I/S/C의 유형에 대한 이해의 시간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 제언과 지침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시간이기도 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교회 설립 8개 학교 교장 및 교목, 김운성 목사와 조찬 간담회 가져



김운성 위임목사와 영락교회 설립 3개 학교법인(영락·대광·보성학원) 산하 8개 학교의 교장 및 교목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가 지난 2월 12일(화) 선교부(부장 김순미 장로) 주관으로 열렸다. 김운성 위임목사 부임 후 처음 모인 이번 간담회는 교목만 모인 지난해와는 달리 학교장도 참석하여 학원복음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이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광초교 신입생을 위한 그림성경책 지원이 결정됐고, 대광고는 영락교회와의 소통, 영락고는 영락교회 선교회와의 결연, 영락의료과학고는 학교와 영락교회를 연계할 동역자 확보를 가장 중요한 일로 제안했으며 보성여고는 지역 특성이 고려된 다문화 선교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등 학교별 현황과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역 방안들이 논의되어 학원선교의 사역방향을 새로이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취재 선교부 학원선교팀 사진 김우람 전도사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전도의 민족’을 주제로 열려



유년·초등·소년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가 지난 2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과 각 부서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전도의 민족’을 주제 타이틀로 열린 이번 봄맞이성경학교에서 아동부 이대혁 목사는 여는 예배 설교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

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아동부가 되자고 어린이들을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는 복화술 인형극, 부서별 어린이 활동과 부모특강 및 기도회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고, 아동부의 모든 어린이들이 미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며 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

취재 정다운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19 고등부 졸업예배, “너는 복이 될지라”



고등부(부장 김동욱 장로)는 지난 2월 17일(주일) 드림홀에서 2019 고등부 졸업예배를 드렸다. 고등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일반학교 학사일정(2월 졸업, 3월 개학)과 동일한 학사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부 졸업 후 상급 교육부서로의 원활한 등반을 돕고자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와 연계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고등부 전담 노대웅 목사는 ‘너는 복이 될지라(창12:1~3)’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토양에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졸업생 대표 유영빈 학생의 고별사와 박창준 135대 고등부 학생회장의 송사를 통해 고등부 신앙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추억했고, 졸업생들은 단상에 올라 졸업의 상징인 스톨(Stole)을 어깨에 두르고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3년 동안 함께 했던 고등부를 나섰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회봉사부, 농어촌교회에 심폐소생 응급장비(AED) 기증



사회봉사부(부장 나선훈 장로)는 한국기독교공보가 펴내고 있는 ‘생명 살리기 심폐소생 응급장비 보급 캠페인’에 동참하여 심폐소생 응급장비(AED) 5대를 농어촌교회에 기증했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전기 충격으로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는 가슴 압박 응급의료기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이다. 이번에 본 교회 후원으로 AED

를 받게 되는 교회는 작은예수공동체(강원), 광덕교회(천안아산), 다대교회(경남), 모악제일교회(전주), 원동교회(전남) 등 5곳으로 농어촌 고령화지역에서 노인모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선정됐다.

지난 2월 13일(수)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천정명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교회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도구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들어 보급하는 귀한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봉사부장 나선훈 장로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심폐소생 응급장비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마침 기독교공보에서 보급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사회봉사부는 차후 2차분 5대도 농어촌교회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사회봉사부 이웃섬김팀,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 펼쳐

사회봉사부 이웃섬김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월드비전 서울북부지역본부(꿈빛마을)와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 돌보아 줄 손길이 없어 결식 우려가 있는 결식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웃섬김팀장 김경진 집사를 비롯한 8명의 봉사자들은 매월 첫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밑반찬 조리, 도시락 포장 활동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김경진 집사

영락미술인회 제12회 정기전시회, ‘생명·부활’을 주제로 개최



영락미술인회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생명·부활’이라는 주제로 정기전시회를 갖는다. 제12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4월 12일(금)부터 17일(수)까지 대학로 위치한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위해 32명의 회원들이 사순절 기간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전시회를 갖게 되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외부 전시를 마치면 영락 성도들을 위해 50주년기념관 지하1층에서 2~3주간 연장 전시를 할 계획이다.

(문의: 영락미협 김갑수 집사 ☎010-4264-7408)

영락포토, ‘삼색(三色)’을 주제로 사진 전시회 열어

영락 성도들의 사진 동호모임인 영락포토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6일(토) 교회 부근에 있는 아트룸 나미브에서는 40여명의 영락포토 회원이 모인 가운데 사진 전시회 ‘삼색전(三色展)’ 개막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삼색전에서는 프랑스의 국기 컬러인 삼색(파랑, 흰색, 빨강)을 테마로 한 회원들의 작품 37점을 선보였다. 영락포토의 이번 전시회는 삼색전 외에도 회원들의 개인전과 함께 4월 25일(목)까지 열린다.



영락여성장학회, 제7차 정기총회 열어 장학증서 수여



영락여성장학회는 지난 2월 27일(수) 낮 12시 제2식당에서 임원 및 후원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1부 순서로 드러진 경건회는 회장 김안순 은퇴권사의 사회로 현정임 장로의 기도와 빌립보서 4:4~7 말씀 묵상, 한빛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 정영근 장로가 유현아(서울 장신대 신대원)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날 여성장학회 장학금을 통해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권주혜(장신대 신대원), 조은애(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송혜연(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학생이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귀하게 쓰임 받는 여성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3월호) 38면에 실린 대학부 수련회 후기 중 기사 첫 줄 “지난 1월 30일까지 4일간”은 “지난 1월 30일부터 4일간”으로 바로 잡습니다.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3월호 정답



목회력

4月

5일(금)

연합권찰공부

6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7일(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종려주일 / 청년부 · 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15일(월)~20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9일(금)

성금요일 / 환경직목사 성묘예식(14시, 영락교회공원묘원)

21일(주일)

부활주일 / 부활주일 음악예배, 전교인 전도주일

21일(주일)~27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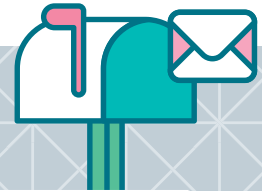
환경직목사 기념주간

26일(금)

심방준비회 / 환경직목사 기념예식 및
제5회 환경직기념상 시상식 (10:30, 본당)

28일(주일)

사회봉사주일



편집장 레터

신학자 에밀 부른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물
질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부활절을 맞이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혹은 게바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이고 게바(Kepa)는 반
석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
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뛰어난 신앙의 간증
을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장엄
한 신전들이 세워지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인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
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예수를 위
해 생명이라도 바칠 결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
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신자들을 받아들일 철학이나 이
론, 제도로서의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
은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반응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
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격적 반응은 선의지를 따르는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기도로써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기도 소리는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울림으로 예수님께 상달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공의(公義)를 실천하는 교회로서 거
듭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향한 순종과 사
랑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
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
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살후 1:6~7)”

- 편집장 이동훈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1월 6일~3월 10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월 6일	김룡호	11	047
	배리은	04	034
	윤중운	10	011
	김주원	16	052
	오하운	10	028
2월 3일	임달선	05	044
	김정숙	12	007
	이태식	14	000
	김남영	14	000
	주학로	13	001
	현인영	13	001
	박갑득	06	039
	최길념	06	039
	정희	06	017
	조임순	07	062
	정진숙	13	038
	박다정	06	039
	송수동	06	046
	박다진	06	039
	김여진	06	023
2월 7일	정상원	01	006
	문제훈	09	051
2월 10일	장민희	04	098
	김현지	04	098
	김순득	07	022
	박선희	18	039
	성연옥	08	002
	박경희	17	000
	조상희	06	029
	김혜경	06	029
	심옥주	04	069
	이재혁	10	06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월 10일	이수진	12	018
	김원태	09	028
	남미진	10	070
	윤미애	09	028
	허원정	07	005
	정재현	13	038
	정현정	13	038
	정재혁	13	038
2월 13일	백제이	13	028
	신채은	07	061
2월 17일	원서현	17	038
	황수정	14	000
	김재천	18	039
	김정수	13	030
	이미자	17	000
	채혜원	02	000
	송미경	08	000
	이미정	14	000
	이성숙	04	065
	손미란	11	003
	최성필	12	000
	국민성	08	000
	고희경	03	049
	김연주	08	000
	강재연	07	027
	이은미	18	045
	호현수	07	014
	정유리	07	014
2월 20일	조서연	16	030
	이산	13	033
2월 24일	김태우	04	022
2월 24일	예지해	13	030

세례·입교를 축하합니다

세례·입교

세례·입교일(3월 3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월 24일	황정식	10	000
	김경화	03	011
	유웅	14	000
	한미정	03	011
	김연순	04	033
	방청훈	04	038
	최중열	10	000
	김은영	10	000
	신근영	08	015
	윤준	10	000
	김홍건	13	026
	배한울	03	021
	백강민	05	058
	이예준	04	098
	이예서	04	098
3월 2일	김다은	17	004
3월 3일	김중용	08	000
	정해손	08	000
	정연식	04	067
	이명순	04	036
	박정환	17	000
	김민철	04	000
	손명수	18	036
	조현광	15	000
	황민경	15	000
	박지은	17	000
	윤효정	09	028
	이하린	12	038
3월 9일	서바로	03	046
	서이로	03	046
3월 10일	배하은	17	044
	윤찬	06	004

신 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임정원	10	014
	정석호	09	021
	김의찬	17	050
	송지수	18	043
	이은빈	11	012
	강예솔	14	053
	양유나	10	050
	최병화	06	006
	하지은	01	013
	이믿음	08	068
	유주은	01	035
	백성민	14	044
	정희원	01	013
	김도윤	03	029
	이수빈	07	026
	김예림	13	013
	최준명	09	052
	조서영	06	030
	류예은	10	019
	장주은	90	888
세례	이서우	06	052
	이재우	06	052
	조갑숙	17	012
	유삼렬	09	057
	김봉덕	02	016
	김태균	70	888
	황제훈	02	031
	박진영	07	036
	조현우	18	099
	이광열	04	079
	황순복	10	013
	전주영	06	058
	김강은	09	002
	김철승	05	008
	김종선	60	88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날말풀이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각 줄의 네모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서 빨간 네모에 들어가는 글자를 연결해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정답은 다음호에)

			별이 있는 날 잠깐 오다 그치는 비
			이른 봄에 피는 노란색 꽃
예배 안내지			
봄 뒤에 오는 계절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지붕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따위를 굳혀서 만든 것
			고호가 사랑한 남프랑스 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행복을 비는 것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꼬불꼬불한 인스턴트 국수

2019 부활절 찬양예배

주 하나님 크시도다

David T. Clydesdale

지휘 : 장세완
오르간 : 전은배

출연 : 호산나 찬양대
호산나 오케스트라
조이플 시너즈
영락 소년부 찬양대

2019년 4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 호산나 찬양대



귀도 레니(Guido Reni)
유화, 132.8cm×99.8cm,
1636~1638

큰 야고보

Saint James the Greater

귀도 레니는 후기 바로크 미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서 종교화의 대가다. 색채와 구성의 조화를 존중하는 그의 그림을 간단히 표현하면 우아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에는 그런 그의 화풍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아함과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그 그림에서 눈길을 끄는 세 가지가 있다. 순례자를 상징하는 단장, 기도를 위해 모은 두 손, 그리고 하늘에 둔 시선이 그것이다. 특히 하늘에 둔 시선은 그가 그린 『에케 호모』(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그림)를 생각나게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때문에 순교한 야고보 사이의 공통점을 생각해볼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빛이 환히 비치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고난의 흔적이 묻어나 있다.